



그라미 주최 '방탄소년단과의 대화'

방탄소년단, 그라미 진출 아쉽게 불발

보수적 성격의 시상식·애매한 데뷔 시기 등 걸림돌
앨범 디자인 회사 '베스트 레코딩 패키지' 부문 후보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그라미 진출을 아쉽게 놓쳤다. 미국레코드예술과학아카데미는 7일(이하 현지시간) 제61회 그라미 어워즈 84개 부문 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방탄소년단 후보 지명이 조심스레 점쳐졌던 신인상(The Best new artist) 부문에는 클로이X할리, 루크 콕스, 그레타 반 플리트, H.E.R, 두아 리파, 마고 프라이스, 비비 텍사, 조자 스미스 등 8팀이 이름을 올렸다. 방탄소년단은 후보에 지명되지 못했지만, 이들의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 앨범 디자인에 참여한 파트너사 허스키펙스가 '베스트 레코딩 패키지'(Best Recording Package) 부문 후보로 올랐다. 이에 대해 미 음악매체 '빌보드'는

"BTS(방탄소년단) 앨범의 베스트 레코딩 패키지 후보 지명은(앨범) 콘셉트에 대한 BTS의 헌신을 기리는 것이자 새로운 돌파구와 이정표를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빌보드는 이어 "팬들이 입증할 수 있듯이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는 근래 가장 아름다운 앨범 패키징의 한 예를 자랑한다"라고 말했다. 국내외에선 올해 눈부신 성과를 거둔 방탄소년단을 두고 그라미 어워즈 진출도 노려볼 만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5월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았고, 10월 '2018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았다. 5월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와 9월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로 '빌보드 200' 1위를 잇달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올가을 북미 7개 도시 투어에서 22만 팬을 동원하기도 했다. 물론 그라미가 다른 시상식에 걸쭉 보수적인 데다 힙합, 댄스뮤직 장르에 배타적이라는 점에서 우려도 있었다. 신인상 기준으론 데뷔 시기도 걸림돌이 됐다. 방탄소년단은 국내에서 2013년 데뷔했으며, 2015년 12월 '화양연화 파트.2'가 '빌보드 200' 171위를 차지하면서 미국 시장에 처음 두각을 나타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지난달 15일 레코딩아카데미 소식통을 근거로 방탄소년단 등이 신인상 후보에 지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포브스는 방탄소년단에 대해 "올해의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는 한 해에 두 장의 1위 앨범을 낸 방탄소년단의 놀라운 상승"이라면서도 "이런 차트 성공은 이 부문에서 후보로 지명되

기에 충분해야 하지만, 이전에 다작을 했기에 이들을 배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방탄소년단은 두 장의 '톱 40' 앨범과 몇 년 전 여러 미국 차트에 오른 소수의 다른 앨범들로 인해 서구에서 막 유명해지고 있음에도 신인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의 도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9월 미국 NBC 인기 토크쇼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The Tonight Show Starring Jimmy Fallon)에 출연해 다음 목표를 "그라미에 가는 것"(Go to Grammy)이라고 꼽았다. 이에 앞서 9월 12일에는 그라미의 초청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그라미박물관 클라이브 데이비스 극장에서 열린 콘퍼런스 '방탄소년단과의 대화'(A Conversation with BTS)에 참석하기도 했다. 제61회 그라미 어워즈는 내년 2월 10일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코요태, 20주년 기념 앨범 선공개곡 발표 리메이크곡 '애원'...2년 만에 완전체 컴백



국내 최장수 흥성그룹으로 불리는 코요태(김종민, 신지, 뽕가)가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의 선공개곡을 발표했다. 소속사 KYT엔터테인먼트는 9일 오후 6시 20주년 앨범의 파트.1으로 리메이크곡 '애원'을 선공개했다. '애원'은 이들이 지난 2003년 발매한 5집 '비상'(非常)에 수록돼 인기를 끌었다. 코요태 색깔이 강조된 발라드로 이번에는 래퍼 뽕가의 파워풀한 랩이 더해져 색다른 매력으로 완성됐다. 코요태 히트곡 등을 작곡한 이용민과 신예

작곡가 최인환이 편곡에 참여했다. 1998년 1집 '고요태'(高耀太)로 데뷔한 코요태는 2016년 12월 '빙빙'(Bing Bing)까지 신나고 경쾌한 한국형 댄스 음악으로 사랑받았다. 이번 앨범은 2년 만의 완전체 컴백이다. 신지는 SNS를 통해 "1998년 12월 9일 데뷔한 코요태! 2018년 12월 9일이 20주년 되는 날"이라며 "팬들을 위해 음악 선물을 준비했으니, 12월 9일 오후 6시 기대해 달라"고 음원 발매를 예고했다. /연합뉴스

트와이스, '엠스테 슈퍼라이브' 출연 일본 인기 음악 프로그램 연말 특집...히트곡 무대

걸그룹 트와이스가 일본 TV아사히 인기 음악 프로그램 '뮤직 스테이션'(엠스테)의 연말 특집 '엠스테 슈퍼라이브 2018'에 출연한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트와이스가 21일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에서 히트곡 무대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트와이스는 지난해 '엠스테 슈퍼라이브 2017' 출연에 이어 2년 연속 연말 특집 출연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986년 10월 처음 전파를 탄 '엠스테'는 32년간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악방송 중 하나로 꼽힌다. 트와이스는 지난해 2회, 올해 6회 '엠스테'의 조대를 받았다. 아울러 트와이스는 31일 일본 최고 권위의 연말 가요축제 NHK 홍백가합

전(紅白歌合戦)에 2년 연속 출연한다. 일본 돗투어도 계획해 내년 3월 21일 오사카 교세라돔, 3월 29~30일 도쿄 돔, 4월 6일 나고야돔에서 총 4회 공연한다. 트와이스는 12일 국내에서 스페셜 앨범 '올해 제일 잘한 일'로 팬들과 만난다. /연합뉴스



'어벤져스: 엔드게임' 어벤져스4 공식 예고편 공개

우주선 안에서 절망적인 표정을 짓는 토니 스타크(아이언맨). 물과 식량이 떨어진 채 우주 공간에 고립된 그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는 듯하다. 지구 위에선 캡틴 아메리카, 블랙 위도우 등이 차례로 등장한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어벤져스3)에선 볼 수 없던 호크아이아가 활대신 검을 들고 남자 복장으로 등장해 눈길을 끈다. 그가 선 곳은 일본어 간판 배경으로 미루어 일본인 듯하다. 영상 말미에는 엔트맨도 모습을 깜짝 내민다. 마블이 처음으로 공개한 2분 45초 분량 '어벤져스4' 공식 예고편 영상이다. 예고편에는 '어벤져스4' 제목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사실과 내년 4월 개봉 소식도 함께 담겼다.

아이언맨·캡틴 아메리카 등 등장...4천8백만 뷰 기록



3편 말미에 닥터 스트레인지(베네딕트 컴버배치)가 "It's the end game.(최종 단계)"이라고 언급한 대사로 미뤄 4편 부제가 '엔드게임'이 되지 않겠느냐는 팬들의 예상은 적중했다. 3편에서 악당 타노스는 인피니티

말 설명을 넣은 각종 동영상도 인기몰이 중이다. 이에 따라 '어벤져스4'가 올해 4월 개봉해 1,121만명을 모은 '어벤져스3' 흥행 성적을 뛰어넘을지 벌써 관심이 쏠린다. 내년에는 '어벤져스4'뿐만 마블 스튜디오가 처음 선보이는 여성 솔로 히어로 물 '캡틴 마블'이 3월 개봉한다. 공군 조종사 캐롤 댄버스(브리 라슨)가 월드 요원 닉 퓨리(사뮤엘 L. 잭슨)를 만나 강력한 히어로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다. 할리우드 배우 브리 라슨이 연기한 캡틴 마블은 한 달 뒤에 '어벤져스4'에도 출연, 최강 히어로로 활약할 예정이다. 한편, '어벤져스4'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 페이지 3를 마무리하는 영화다. /연합뉴스

생생하게 구현한 매력적인 '나쁜형사' 신하균, 섬세하고 입체적인 우태석 연기

그의 연기를 보고 있다면 팔자주름과 미간까지도 연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오랜만에 '나쁜형사'가 대안방극장에 돌아온 배우 신하균(44) 이야기다. 그는 흡사 그래픽 노블을 영화로 구현한 '씬 시티'를 보는 듯 만화 같은 이야기를 소재로 한 MBC TV 월화극 '나쁜형사'를 3차원에 생생하게 구현해낸다. 영국 BBC 인기 드라마 '루터'(Luther)를 원작으로 한 '나쁜형사'는 '루터' 속 존 루터가 그렇듯 우태석이 알파오 오메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플지가 선정한 올해의 가장 색시한 남자이드리스엘바의 존 루터는 거칠고 음울한 느낌이었다면, 신하균이 그리는 우태석은 날카롭고 세련된 느낌이다. 형사면서 지능적으로 탐법을 자행하는 자극적인 설정도 신하균의 디테일한 연기 덕분에 개연성과 정당성을 갖춘다. 그렇다고 우태석이 차가운 매력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가 '괴물'에 가깝게 변한 것은 13년 전 살인사건과, 그 사건을 목격한 후 실종된 배여울(조이현) 때문이다. 여울을 찾고 범인을 단죄하려는 형사로서의 뜨거운 피가 그의 두뇌를 누구보다도 차갑게 만든 셈이다. 범인을 잡기 위해 뛰는 과정이나 난간에서 장형민의 손을 놓아버릴 때 우태석의 눈빛에서도 냉철함과 뜨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신하균의 입체적



이고 섬세한 연기 덕분이다. '나쁜형사'는 시작부터 많은 이야기를 빠른 템포로 그려낸다. 우태석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 이야기 역시 가쁜 호흡으로 그려지는 편이다. 이렇게 되면 전개가 산만할 법도 한데, 신하균이 무게중심을 짚 잡는 덕분에 극은 빠른 흐름 가운데에서도 단계를 생략하지 않고 서사와 복선을 차곡차곡 쌓아나간다. '나쁜형사'는 기획부터 신하균을 주인공으로 염두에 둔 작품으로 알려졌다. 신하균 역시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을 극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나쁜형사' 관계자는 9일 "신하균이 원작과 또 다른 우태석 캐릭터를 위해 긴 시간 고민하고 준비했다"며 "모두가 기대한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비투비 이창섭 군입대 전 단독 콘서트

내년 1월 5~6일...14일부터 예매 시작

보이그룹 비투비의 이창섭(27)이다 음 달 입대를 앞두고 단독 콘서트를 연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이창섭이 내년 1월 5~6일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2019 이창섭 단독 콘서트 스페이스(SPACE)'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창섭은 내년 1월 14일 입소해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역으로 복무한다. 그룹에서는 지난 8월 입대한 서은광에 이어 두 번째 병역 의무 이행이

다. 이창섭은 2012년 비투비 리드 보컬로 데뷔해 '그리워하다',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등의 곡으로 사랑받았으며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했다. 이달 11월 첫 솔로 앨범 '마크'(Mark)를 발표한다. 공연에선 팝 발라드부터 얼터너티브 록까지 다양한 장르를 선보일 예정이다. 팬클럽 회원은 14일, 17일 예스24에서 예매할 수 있다. 일반 예매는 19일부터 가능하다. /연합뉴스